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왕 성경: 스가랴 9장 9-17절

Tag: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뱀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이다

17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9:9-17)

스가랴 9장은 종려주일이 있게 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기뻐하였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아서 왕의 가는 길을 치장한데서 비롯되었다.

종려나무는 특히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나무다. 여선지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면서 정사를 돌보았다. 또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맺는다.(우리나라 대추보다 두배 이상 크고 맛도 설탕덩어리 같다.) 나무가 크기도 하거니와 그 열매의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당도는 강하다. (포도 알갱이 맺히듯이 열리는데, 그 크기가 포도송이 100송이가 한꺼번에 맺히는 것 같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즉시 성전을 청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사실 9절 말씀만 유명하다.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
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
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그들이 교만이 결국은 그들을 파멸케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예언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팔레스틴 전체가 헬라문화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메시아의 강림은 정치 문화적으로 평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10~12절 말씀까지는 9절 말씀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지만 그 뒤를 이은 말씀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9절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10절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모습과 땅 끝까지 이르러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절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약속한 대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너희여 이제 돌아오라. 이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다. 이런 소망을 품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갇아 주신다는 뜻이다.

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갇을 것이라

그런데 12절 부터는 9~12절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한다. 곧 ‘요새’라는 단어다. 요새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요새는 전쟁때 사용하는 전략요충지에 견고하게 건설되어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군사들을 안전하게 도피시키며, 적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이다.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께서 왜 우리를 ‘요새’로 전략적 요충지로 돌아오게 하실까?

그 뒤로는 살벌한 전쟁용어가 등장한다. 아마 당시로서는 스가랴가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지는 환상들을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벌어지는 복음전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뱀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LXX에 원수, 피를, 피가 가득한 표현 등장. 아마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마카비 반란을 예언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기독교의 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무자비한 식민지 정복을 거론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오늘 본문 이전 1-8절까지만 해도 헬라문명을 통한 지중해 아시아 일대의 통일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메시야를 보내셨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들의 세속 문화를 방지해서 그들이 행복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교는 문화적 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복이 아니고는 악한 문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또 엄밀히는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고, 선교는 그 뒤를 이은 선교사들의 헌신적 복음전파로 인해서 진행되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선교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서는 예언의 성취인 셈이다.

이로 볼 때 우리는 기독교의 선교, 기독교 국가의 정치행태, 통치행태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선교는 성령운동이었으며, 기독교 국가의 정치행태는 강력한 군사력, 탁월한

전쟁무기, 통치형태는 거주민들의 자유와 법치와 질서와 교육과 풍요로움이었다.

기타 다른 통치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 통치형태를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슬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국가의 통치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독교적 정치체제가 확립된 나라로 물 밑 듯이 이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체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연출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겸손하신 왕의 모습은 구원하실 백성들의 왕이심을 묘사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섬기시는 왕으로 임하신 것이다. 원수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전쟁무기로 단단히 무장하시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그리고 기독교국가의 통치체제는) 사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태다. 즉 구원+회복+보상+하나님의 통치)

무조건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절대적 선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겸손하시고 나귀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정의와 구원을 베푸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깨어 기도하라

성경: 마태복음 26장 36-46절

Tag: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 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 26:36-46)

-12제자들에게(마가 포함)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음, 기도 내용을 들으라는 뜻인가? 듣고 따라 하라는 뜻인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더 나아가셨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무엇을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1.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시고 고민하셨다.
2. 유다의 배신 때문에 놀라고(마가) 고민하시고 슬퍼 하셨다.
3.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철이 없는 제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 하셨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1. 예수님께서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시므로 그 마음에 동참해 달라.
2. 잡혀 가실 것이 염려스러워서 망을 보고 있으라. 기도하시는 중 다른 계획이 서면 도피하실 것을 준비하셨는가?
3. 앞으로 닥칠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 차례 예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귓등으로 듣고 있는 중이었다.(아니되옵니다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

1.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건너뛰게 해 주십시오.(고난과 희생을 건너뛰고 베드로가 원하는 구원을 주소서?)
2.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3. 제자들이 성숙한 리더들이 되기까지 기한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왜 기도 하시다가 오셨을까?

1. 기도하시면서 쉬는 시간이 되어서
2. 제자들도 기도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하기 위해서(시험에 들까 염려되시어서)

3. 누가 자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졸고 야고보가 자고 있었을 것이다. 요한은 깨어있었을 확률이 크다.)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헤아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은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두가지 내용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마시옵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이다.